



釜山東萊로타리클럽



WEEKLY BULLETIN THE ROTARY CLUB OF BUSAN DONGRAE

2007-08



WILFRID J. WILKINSON
ROTARY INTERNATIONAL PRESIDENT

RI 3660 地區 總裁 行動指針

“모든 로타리안은
또 한분의 로타리안을”

“ 30주년 기념 주회”

수 없는 날들을 회장, 총무, 사무장과 회원들이 노심초사 밤을 새우며 준비 해 온 바로 그날. RI 가입 승인, 중세 전수 30주년 기념일이다. 27일부터 일본 선반 손님을 맞으라, 28일 오늘 오전에는 제주 손님, 오후에 일본 손님 본대를 맞고, 식장도 준비하느라 회장이하 모두 분주하다. 총재 7분, 제주 17분, 일본 23분을 포함하여 100여명의 손님을 맞는 대 행사이니 오죽하랴. 저녁 6시30분. 거의 정시에 동계 회장의 개회 타운으로 30주년 기념 주회가 시작된다. 새로 도입된 프리젠테이션에 의해 식순 전 과정이 양쪽 화면으로 비춰지는 가운데 일본을 포함한 양국 국기에 대한 경례와 기미가요와 애국가 제창. 여기에는 삼승 중창단의 우렁찬 합창이 포함되니 장내를 압도한다. 로타리 강령은 백인 전 회장이 알고, 대 가지 표준은 순천 부회장이 맡았다. 매뉴얼과 좀 상이한 것이 옥의 티라고나 할가? 내빈을 많이 모셨으니 소개하시는 동계 회장 또한 송 가쁘다. 클럽 연혁 보고는 화산 전 회장이 맡아 하고 교환 봉사 사업금은 금반 자매결연을 맺은 남포 마을 자녀들의 배움터인 북천 초등학교에 जाए 일본 요코하마 쓰르미 니시 클럽의 아라이 회장께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사로 진행 된다. 전 회원 24명의 소규모 클럽으로 어려움이 클 텐데도 가족이 포함되었다 해도 23명이라는 많은 축하 사절을 대동하고 오신 아라이 회장을 감사드린다. 30주년 기념 봉사금은 동계 회장께서 먼저 동래 구청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등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하고, 아순타의 집, 성 바오로 아동 요양원, 덕천 종합 사회 복지관, 해일양 등 전통적으로 봉사를 해 오던 사회 기관에 성금을 전달하신다. 이어 계산 장학 문화 위원장께서 고교 장학생 6명에게 동래 로타리 클럽 장학금을 전달하고, 다시 또 동계 회장께서 참립 회원이신 정암, 은국, 유천, 세븐은 물론이거니와 일당에서 축하객으로 오신 본 클럽 전 회장 황의중선생님께도 함께 기념품을, 목욕회에서 꽃다발을 전달하신다. 일본측 축하객에는 쓰르미니시 참립회원이며 현 83세인 이시이 상이 계시는데 젊은 시절 호형호제하며 개인적으로도 뜨거운 도움을 주고받았던 황의중 선생과 몇 십 년 만에 감격의 재회를 하였다는 후일담도 있다. 기념사에서 동계 회장은 로타리 클럽들이 겪는 30주년의 부침을 우리는 극복하고자 다짐하신다. 명정 한기승 총재께서는 치사에서, 동래 클럽은 30년을 한결같이 “더 황도, 모자람도 없는” 항상 재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문 클럽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칭찬인지 분별하라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허긴 재자가 생각해도 신용 영문 클럽에서 본받을 점이 많다고 보아야겠다. 자매 클럽인 요코하마 쓰르미 니시 클럽의 아라이 회장, 신제주 로타리 클럽의 남성 김창준회장의 축사가 있고 역대 회장과 총재, 지구 임원들의 축하 케익 커팅이 있을 후 스폰서 클럽인 동부산 로타리 클럽의 전정장 회장의 축하 제의가 있다. 30주년을 영원히 남길 기념 촬영을 한 후 동계 회장의 폐회 타운으로 30주년 기념 주회는 끝났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만찬과 함께 삼승 중창단의 축하와 도진미양의 바이올린 독주가 있다. 도진미의 바이올린은 청중을 압도 할 만큼 다이내믹하고 화려한 음율을 쏟아낸다. 특히 단하 좌석까지 내려와 열연을 할 때는 젊은 신제주 클럽의 회원들이 기립하여 함께 호응을 하니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른다. 신제주 클럽은 우리 클럽과 자매의 연을 맺고 많은 교훈과 부러움을 우리들에게 주어 왔지만, 젊음이 넘치는 파워로 또 다른 부러움과 함께 이들이 아니었다면 공연 분위기가 어땠을까 하는 자성을 던져 주기도 한다. 누가 뭐래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 오늘을 만들어 내신 회장, 총무께 뜨거운 박수를 드린다.

RI 會長: 윌프리트 J. 윌킨슨 / RI 3660 地區

總裁: 明庭 韓基昇

會 長 東齊 朴東元
次期會長 無盡 李彤均
指導 理事 云谷 朴東奎
指 導 事 多 空 李圭文

副 會長 松文 金昌煥
總 務 瑞原 柳根液
財 務 南丁 鄭泰訓
會 員 松南 李在寅

클럽 弘報 東軒 吳龍俊
클럽 管理 愨修 殷鍾均
奉仕 프로젝트 素亭 金亨驥
로타리 財團 湖山 曹炳鎬

동계 박동원 회장 기념사



존경하는 국내·외 내빈, 회원 및 회원 합부인(목화회 회원) 여러분!
오늘 부산 동래로타리클럽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RI3660지구 明庭 한기문 총재님, 그리고
전총재님, 牛堂 강정부 차기총재님, 野山 장만영 차차기총재님,
弘畝 윤홍주 차차차기 총재님, 也林 심재현 제3총재지역대표님,
지구 임원 여러분! 특히, 해외에서 오신 橫濱鶴見西 로타리클럽 회장, 회원
및 합부인과 멀리 제주도에서 오신 자매클럽 南石 김창준 신제주
로타리클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지구내 각 클럽 회장, 회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클럽 창립 30주년을 축하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동래로타리클럽은 1978년 2월 22일 동부산 로타리클럽이 스폰서가 되어 이적회원 25명,
신입회원 14명 총39명으로 창립되어 그해 5월 13일 국제로타리로부터 가입 승인 및 증서를 전수
받았습니다. 창립후, 30년 동안 국제로타리의 폴해리스 헬로 187구좌와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봉사의 인 219구좌, 클럽 자체 장학금 일억오천육백만원으로 현재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립후, 2개 클럽을 설립하였고 필리핀 카가얀 디오르 로타리클럽과는 국제로타리 상용
보조금으로 각각 20,000불 상당의 사업을 실천했으며 국내,외 자매클럽과도 공동사업을 하고
있으며 부산 시내의 4곳에도 지속적으로 매년 봉사금과 현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0년동안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우의를 다지며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통해 로타리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 하면서 활기차고 모범적인 로타리클럽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창립회원님의 굳건한 받침대 위에 역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분의 헌신적
인 참여와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감사되어 경의를 표하여 마지 않습니다.

우리 동래로타리클럽은 오늘로서 30세라는 장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명문클럽이라고 불리던 클럽이 30주년이 지나면서 점차 쇠퇴하는 곳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의 영광스러운 기념식을 계기로 지난날의 업적에 쇠하지 말고 지속적인
회원 증강을 이루어 더욱 성숙되고 발전적인 로타리 클럽이 될것을 다짐 합니다!

끝으로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과 회원님,목화회 회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코하마 쓰루미니시 클럽 아라이 시게아키 회장 축사>

방금 소개 받은 요코하마 쓰루미니시 로타리클럽 회장인 아라이 시게아키입니다.

부산 동래로타리클럽 여러분, 왕림해 주신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귀 클럽 창립30주년 기념일에 즈음하여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자매클럽인 우리 요코하마 쓰루미니시 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을 대표하여 축하 인사를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이하 일본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귀클럽과 자매관계를 맺은 지 벌써 29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에 이르는 동안 끊임없이 교류와 우정을 쌓아 왔습니다. 또한 양클럽 회원들에 의한 상호 친선
방문도 29년동안 한번의 중단도 없이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는 귀 클럽과 우리클럽의 역대 회장님들,
그리고 선배회원님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과 따뜻한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더 우정의 폭을 넓혀 우리의 친선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클럽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 빛나는 전통과 업적을 쌓고 계시는 귀클럽의 창립30
주년에 다시 한번 경의를 축하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제주 자매 클럽 김창준 회장 축사>

존경하는 부산동래로타리클럽 동계 박동원 회장님과 회원및 가족 여러분!

오늘 부산동래로타리클럽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자매클럽인 신제주 클럽을

대표하여 축하 인사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신제주 클럽

전회원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봉사"라는 뜻으로 창립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그 이웃에게 나의 것의 일부를 나누어 주고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남을 돕는

조그만 한 봉사로 시작하여, 나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일을 여러 사람이 힘을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신 역대 회장님을 모아 오늘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부산동래로타리클럽 회원여러분 그 동안 우리 양 클럽은 1990년 9월 4일 자매결연을 맺어 공동
봉사사업을 실시하고 매년 상호 방문을 거듭하면서 우정과 친목을 돈독히 쌓아왔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부산동래클럽과의 합동 야간주회와 한라산 등반은 양 클럽 회원간에 친목과 우정이
넘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동래 클럽 회원여러분! 우리들의 작은 봉사가 한줌의 밀결음이 되어 밝은 사회가 되고,
이웃이 함께 잘사는 사회,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야말로 행복의 시작일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자의를 어떻게 확대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뜻 깊은 창립 30주년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보람찬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부산동래로타리클럽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및 가족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축사에 갈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정 한기승 3660지구 총재 치사>



존경하는 廷岩 尹起鎬 총재님,
釜山東萊로타리클럽 朴東元
會長님과 會員 그리고 家族 여러분,
자리를 빛내주신 辛재현 總裁地域
代表님, 스폰서클럽인 東釜山
로타리클럽 전정성 會長님,
日本姉妹클럽인 橫濱鶴見西
로타리클럽 荒井成晃 會長님과

會員 여러분, 新濟州로타리클럽 김창준 會長님과 會員
여러분, 각 클럽 會長님과 來賓 여러분, 오늘 뜻깊은
創立 30周年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祝賀의 말씀을 드리
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또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30년이란 긴 세월동안 오늘의 東萊클럽이
있기까지 로타리와 클럽의 發展을 위해 헌신하신 歷代
會長님과 會員여러분의 崇高하신 奉仕精神에 깊은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歲月이 30이나 지났으니
자연히 歷史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당시 39명으로 출범
하셨지만 그 중 25명은 東釜山클럽 會員들이 參與했기
때문에 어떤 意味에서 클럽 歷史는 30년이 아니고 東釜
山클럽과 같은 年輪을 갖고 있는 클럽으로 생각 들기도
합니다. 東萊클럽으로 합류한 會員가운데는 故 英명석
총재님, 윤기호 총재님도 계셨고 윤기호 總裁님은 東萊
클럽의 初代總務로서 클럽 기초를 다지는데 크게 寄與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東萊클럽을 創立하신 東釜山클럽의 會長님은
故人이 되신 전병국 前 總裁님이었고 당시 地區總裁는
故 이종덕 總裁님이었습니다. 東萊클럽이 誕生될 때만
해도 釜山에는 클럽이 아홉개밖에 없었으니 지금의 78
개 클럽을 생각하면 隔世之感을 느끼게 합니다.
이 모두가 歷史속에 있었던 지난날의 단편적인 모습이
었습니다. 그 때 지금은 대부분은故人이 되셨지만 그
분들이 있어 오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尊敬과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이룩하신 많은 業績
은 간단하게 요약된 클럽 沿革속에 30年の 歷史와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歷史속에서 형성된 東萊
클럽의 특징같은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傳統이 되어 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입니다. 東萊클럽은 나름대로 設定된 클럽의 규모에서
항상 지나치지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狀態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클럽 같습니다. 말하자면 클럽 運營에
無理가 없고 順理가 지켜야 될 클럽의 價値로 認識되어
온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會員數 6-
70名線의 변함없는 維持, 로타리 財團寄與度 Per
Capita 100불 이상, 意味는 地域社會 奉仕活動,
談笑會 活動에서 보여지는 회원간의 친목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로타리 클럽이었던 해아일 모든것을
均衡있게 실천하고 있는 클럽으로 우리 모두의 模範
클럽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長點은 살리고 短點은
시정해 갈 때 보다 더한 發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東萊클럽의 30년이 省察과 反省의 기회가 되고 보다
더한 發展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을
다 함께 고민하시는契機가 될 때 30年 이후의 東萊클럽
의 모습은 다른 면모를 보이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듭해서 釜山東萊로타리 클럽 30周年을 축하드리고
東萊클럽의 무궁한 發展과 會員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하면서 祝賀의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회비 납부 안내

5월 - 6월 회비(6분기) 25만원

금회기 마지막 6분기 회비를 가일내 납부 해주
시기 바라며, 07-08년도 회비 미납회원께서는
6월 30일까지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행 (부산동래 로타리클럽 이통권)

계좌번호 : 1002 - 334 - 416000

조	이호	성명	출석	출석률
1번 조장	윤곡	박동규	출	89%
	송현	서성빈	출	
김창환	정림	임봉규	출	89%
	세경	노수용	출	
이동균	지광	최수기	출	89%
	동원	장석교	출	
2번 조장	여옥	정석근	출	89%
	형모	김영표	출	
무진	진재	박준배	출	89%
	소양	조상훈	출	
이동균	경양	도재철	출	89%
	동원	고준희	출	
3번 조장	유선	조병주	출	89%
	계산	성훈석	출	
소정	희산	김 교	출	89%
	송석	김관희	출	
김영우	세호	송승호	출	89%
	송진	안정현	출	
4번 조장	구정	정대기	출	88%
	남정	한상남	출	
정태준	지산	김태은	출	88%
	준경	강진규	출	
5번 조장	안혜	박성환	출	100%
	호산	이수현	출	
조인호	대경	손경호	출	100%
	진석	이규현	출	
6번 조장	윤천	김종무	출	100%
	장천	김경수	출	
7번 조장	정양	윤기호	출	80%
	우성	정동민	출	
오용준	남용	곽요흥	출	80%
	송양	김양우	출	
8번 조장	욱당	최주수	출	83%
	송남	김종규	출	
이재민	동재	박동원	출	83%
	소양	문진상	출	
9번 조장	서민	김성석	출	83%
	유근복	이진홍	출	
10번 조장	자운	김광석	출	83%
	자운	박진욱	출	
11번 조장	자운	김병섭	출	83%
	자운	김병섭	출	

< 동래 로타리클럽 창립 제30주년 기념 봉사 현황 >



▲ 동래구 관내 불우 노인 복지용으로
월당기 30대, 미니 실버카 50대,
휠체어 3대, 보청기 2대 등
금 일천만원치의 물품을 동래
보건소에 기증하기로 하여,
기념 주회시, 동래 구청장님께서
기증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본클럽이 봉사
활동 하고 있는
봉사 단체에서 오신
성바오로아동요양원
원장수녀님, 아순타
의집 수녀님, 덕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해일양
원장 스님께 봉사금
을 전달 하였습니다.



◀ 일본 자매클럽
과의 상호 교환
봉사 사업의 일환
으로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에
위치한 북천 초등
학교에 도서구입비
로 15만엔을 전달
하였습니다.



▲ 제30주년 창립 기념주회시, 계산 장학
문화회위원장님께서 장학금을 전달하셨습니다.

< 동래 로타리클럽 장학 문화위원회
2008년 2/4분기 장학금 지급 >
*총 장학금 2,400,000원(1인당 400,000원)
클럽 고교 장학생 명단
한국테크노과학고등학교 2년 전수용
동래고등학교 2년 이지훈
금정고등학교 2년 장우원
동래여자고등학교 2년 박보람
지산고등학교 3년 김경희
브니엘고등학교 3년 이은정

다음주 주회 안내 : 6월 생신 외원 축하

일 시 : 2008년 6월 4일 (수) 12:30
장 소 : 허심청 2층 사파이어룸

=> 6월 생신 맞으신 운당 전회장님, 백민 전회장님,
현암 회원님, 동림 회원님, 최영철 회원님의 생신파티가
개최 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차기 클럽 협의회 : 200.6.11.(수) 18:30 /사파이어룸 개최 (추후, 공지예정)



素澹 金種德

생년 월일 : 1942. 9. 29
입회 날짜 : 1985. 9. 18
기부 현황 : 3 stone P,H,F
장학의 인 : 2구좌
봉사직인 : 6구좌
추천 회원 : 정동문

직업 : (주)동화수산/대표
회사 : 051-868-2771 자택 : 051-556-2346
Fax : 051-861-8553 H.P : 011-599-5878



一默 李洙鉉

생년 월일 : 1940. 12. 20
입회 날짜 : 1986. 3. 5
기부 현황 : 1STONE P.H.F
장학의 인 :
봉사직인 : 2구좌

추천 회원 : 김경민

직업 : (주)동양직물/대표
회사 : 051-647-1234 자택 : 051-508-6336
Fax : 051-647-1236 H.P : 011-598-0122